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회의 개최

정보교류 및 참여 확대 논의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위원장 김창순)가 지난 6월 8일 모임을 열고, 회원 간 정보교류 강화와 참여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2023년 분과 골프모임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원사간 협력과 협업을 통한 위상 강화를 위해 소속 분과 회원사의 적극적이고 많은 참여 방법 등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참여가 저조한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다양한 활동과 협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김창순 위원장은 “소소하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모임 참석이 즐겁고 활동적으로 변화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충주 대영힐스CC에서 운동을 마친 후 지역 음식점에서 진행됐다.



▲ (사)한국포장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가 지난 6월 8일 모임을 열고 회원 간 정보교류 확대 등을 논의했다.

(사)한국포장협회

일·생활사업 설명회 실시

노동정책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논의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지난 6월 8일 충주 소재 필맥스에이엠피 회의실에서 일·생활 균형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 또는 소규모 모임에 참석해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생활 균형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각 회원사의 노동정책에 관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회원사 간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정보를 교류하는 등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에 나서자고 의견을 모았다.

협회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 회원사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설명, 세미나, 홍보 등을 지속하고 있다.



▲ (사)한국포장협회는 지난 6월 8일 충주 소재 필맥스에이엠피 회의실에서 일·생활 균형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사)한국포장협회

화성지역 모임 열어

하반기 계획 논의



▲ (사)한국포장협회 화성지역모임이 지난 6월 7일 화성소재 반값소에서 모임을 가졌다.

(사) 한국포장협회 화성지역모임 (위원장 김보철)이 지난 6월 7일 화성 소재 반값소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임경호 협회장을 비롯해 김보철 위원장 등 지역 회원사 10여명이 참석했다.

임경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화성지역 모임은 협회 지역 모임의 중심이고 모범적”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협회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보철 위원장은 “화성 모임이 더욱 단합되고 회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하반기 화성지역 모임의 일정 조율과 행사계획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집행부가 차후 논의 내용을 확정 공지하기로 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구미공장

영남이공대와 산학협력 협약

취업 연계교육으로 우수 인재 양성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대표이사 김영범) 구미공장과 영남이공대학교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6월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일·학습 병행을 통한 취업 연계 교육으로 기업 중심 우수 인재 양성과 일자리 미스매칭



▲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과 영남이공대학교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채용 연계 기반 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 개설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채용 연계 기반 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의 산업체 전문가 참여 ▲교육과정 이수자 채용지원 ▲창

업 교육 및 창업 지원 활동 협조 ▲시설 및 연구 장비 공동 활용 ▲기자재 공용 활용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 참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공동 기술 개발 등에 나선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국내 최초 나일론 생산으로 화학섬유 시장을 이끌었고 산업자재, 화학, 필름 및 전자 재료, 패션의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을 선도하는 종합소재 화학기업이다.

영남이공대학교 이재용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은 우수한 기업체로 취업하고 기업은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채용해 대학과 기업이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산업체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취업 연계 기업체 확대는 물론 현장실습, 채용정보 공유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형 실무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이공대는 전국 최고 학과 경쟁력 및 취업 시스템 구축, 일·학습병행 및 지자체 상생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국고 지원 사업 선정으로 직업교육 중심대학으로 인정받았다.

롯데알미늄

국제어린이마라톤 참여

‘국내외 아동 후원’

롯데알미늄(주) (대표이사 조현철)은 자사 임직원과 가족 100여명이 지난 6월 3일 국제 아동권리 비정부기



▲ 롯데알미늄 임직원과 가족이 지난 6월 3일 세이브더칠드런이 주관한 '국제어린이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구(NGO)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주관한 '국제어린이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국제어린이마라톤은 기후 위기 등으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돕기 위한 활동으로, 4킬로미터(km) 미니코스도 구성된 코스를 뛰면서 1km마다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롯데알미늄은 이번 행사에 페트(PET) 수거기도 설치해 대회에서 발생한 페페트병을 거둬들이는 등 친환경·자원 선순환 활동에 힘을 보탤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롯데알미늄 직원은 "가족들과 함께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동 생존권을 지키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롯데알미늄은 세이브더칠드런과 5년 연속 'AL♥YOU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후원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안산 지역의 학대 피해 아동과 행위 대상에 심리 검사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에게 생계비, 교육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다.

롯데알미늄은 이 밖에도 지난 5월 3일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 후원 기프트박스를 제작해 안산시아동들에게 롯데알미늄 기프트박스 전달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기프트박스는 학대 피해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급됐다.

대상

청정원 제품 기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임직원 · 청정원 주부봉사단, 매대 진열 봉사도 나서

대상(대표이사 임정배)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월스토어에 청정원 제품을 기증했다고 지난 5월 31일 밝혔다.

대상은 5월 30일 신규 오픈한 굿월스토어 밀알수원북문점에서 '신규사업장 후원물품 전달식'을 열고 총 6500만원 상당의 청정원 제품을 전달했다.

굿월스토어는 밀알복지재단의 장애인 자립 지원 프로젝트 '행복한 출근길'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우선 고용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직업 재활시설이다. 대상은 지난해 6월 굿월스토어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환경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사 제품과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지속해서 기부하고 있다.

이번에 기부한 제품은 청정원 파스타 소스 · 스파게티면 총 1만 9770개로 올해 신규 오픈하는 굿월스토어 매장 4곳에서 판매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신규 매장 경우 판매할 물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부 물품이 매장 오픈 초기 홍보와 고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21



▲ 대상이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월스토어에 청정원 제품을 기증했다.



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동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매장 오픈에 앞서 지난 5월 24일에는 대상 임직원과 청정원 주부봉사단이 함께 굿월스토어 밀알수원북문점의 매대 진열 봉사에 나서기도 했다.

김경숙 ESG경영실장은 “일회성 기부가 아닌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차별 제도’를 목표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ESG경영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김경숙 대상 ESG경영실장, 이보라 사회공헌팀장을 비롯해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 한상욱 굿월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오리온

식품 상장기업 브랜드 '6월 1위' 차지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빅데이터 분석결과...2위 농심, 3위 오뚜기 순

2023년 6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식품 상장기업 브랜드평판 1위는 오리온이 차지했다. 뒤이어 2위는 농심, 3위는 오뚜기 순으로 분석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최근 식품 상장기업 61개 브랜드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브랜드 평판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식품 상장기업 브랜드 빅데이터 6582만 4627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집계했다.

브랜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어 평가했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만들어진 지표다. 브랜드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정성적인 분석 강화를 위해 ESG 관련 지표와 오너리스크 데이터도 포함했다.

그 결과 6월 식품 상장기업 브랜드평판에서 오리온, 농심, 오뚜기, CJ제일제당, 한일사료, 동서, 풀무원, 대한제당, 롯데웰푸드, 팜스토리 순으로 나타났다.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오리온은 참여지수 13만7417, 미디어지수 35만3945, 소통지수 51만8108, 커뮤니티지수 162만5905, 시장지수 176만3546, 사회공헌지수 4만325를 기록해 총 브랜드평판지수 443만9246으로 분석됐다. 지난 5월에 기록한 359만1344와 비교하면 23.61% 상승했다.

2위 농심은 참여지수 25만6309, 미디어지수 61만3252, 소통지수 53만7837, 커뮤니티지수 160만3965, 시장지수 96만8381, 사회공헌지수 7만274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05만2486으로 분석됐다. 지난 5월 301만3233과 비교해보면 34.49% 상승했다.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주]삼민화학공업(주)

1968년 7월 1일 창립 55주년

[주]수정실업

1987년 7월 1일 창립 36주년

[주]신한기계(주)

1997년 7월 1일 창립 26주년

[주]제팩

1996년 7월 2일 창립 27주년

[주]정원산업

1977년 7월 8일 창립 46주년

[주]아이엠피

2009년 7월 12일 창립 14주년

[주]아이피씨

1984년 7월 13일 창립 39주년

[주]상보

1977년 7월 15일 창립 46주년

[주]오리온

1954년 7월 25일 창립 69주년

창립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어 3위 오투기는 참여지수 18만5490, 미디어지수 39만2085, 소통지수 63만5433, 커뮤니티지수 161만 3362, 시장지수 64만6622, 사회공헌지수 5만4293을 기록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52만7284로 분석됐다. 지난 5월 227만6021과 비교하면 54.98% 상승했다.

(사)한국포장기술사회

세종사이버대 유통물류학과와 MOU 체결

포장전문가 초빙해 완성도 높은 커리큘럼 운영

(사)한국포장기술사회(회장 김충일)가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유통물류학과와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6월 2일 밝혔다.



▲ (사)한국포장기술사회와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통물류학과가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유통물류학과 백소라 학과장, 한국포장기술사회 김충일 회장 겸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1995년 설립된 한국포장기술사회는 2000년 산업자원부로부터 사단법인 정식인가를 받았으며, 포장 분야의 국가 최고 자격인 포장기술사를 취득한 18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단체다.

김충일 한국포장기술사회 회장은 “회원들은 석유화학 포장재원료, 플라스틱 연포장재, 플라스틱 용기, 금속캔, 유리

용기, 목재, 물류, 완충포장, 지기, 골판지, 포장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체에서 연구·개발·생산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소라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통물류학과 교수는 “유통물류학과는 포장전문가들을 초빙해 유통과 물류 측면의 포장까지도 다루는 유통물류 분야의 완성도 높은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사이버대 유통물류학과는 수요예측, 재고관리, 유통물류DT, 물류센터 운영과 안전, SCM, 항공물류, 해상물류, 수출입통관실무 등 유통, 물류, 무역 분야에 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과목을 운영한다. 아울러 유통물류 통합 역량강화 전문가 과정, 글로벌 무역물류 전문가 과정, 고객중심 디지털유통서비스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시 총장명의로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한편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통물류학과는 지난 6월 1일부터 2023년도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한국제지연합회

‘제7회 종이의 날’ 기념식 열어

6월 16일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등 유관단체 100여명 참석

한국제지연합회가 6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종이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제지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에는 국내 주요 제지사 대표를 비롯해 전후방 업계·학계·유관 단체 대표, 정부 관계자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제지산업 발전 유공자 9명에게 산업부장관상을 수여했으며, 이어 2023년 종이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결과 발표,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종이의 날 행사는 기계식 종이를 처음 양산한 1902년 6월 16일을 기념하는 행사로 제지연합회를 비롯해 서울경



▲ 지난 6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회 종이의 날 기념식'에서 주요내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지류도매업협동조합,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등 제지 전후방 유관 단체가 매년 참여하고 있다.

이복진 제지연합회 회장(태림 대표)은 기념사에서 “종이는 우리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면서 “오늘날에는 친환경 대체재와 산업의 기초소재로 그 영역을 확대해 가는 등 사회·문화·경제적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포장재공제조합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 개최

기초지자체, 공동주택 2개 부문 공모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이찬희, 이하 공제조합)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2023년도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을 개최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고, 공제조합이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지자체 부문은 시·군·구(특별자치시·도 포함, 광역지자체 제외)의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부문은 150세대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전 참여는 공제조합 홈페이지(www.pkg.or.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sora819@pkg.or.kr)로 제출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홍보전략팀(02-6948-87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가 기준은 분리배출 자원순환체계 구축, 품목별 분리배출량, 주민 홍보·교육 및 구성원 참여도, 우수사례 등으로 공정한 심사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우수단체를 선정, 2023년 10월 말경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11월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포상 내역은 환경부 장관상(부문별 1개소·500만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부문별 1개소·300만원), 공제조합 이사장상(부문별 3개소·200만원) 등 총 10개소를 선정하여 총상금 2,800만원을 수여한다.

이찬희 공제조합 이사장은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재생 원료로 탈바꿈시키는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모전을 통해 전 국민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참여도를 높이고,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인식 전환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부

순환경제의 산업계 확산에 본격 나선다

표준 포장재 이용 사업자 지원 등 ‘포장재 관리 강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1일 추경호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순환경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다양한 폐자원이 산업에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안전하고 경제성이 높은 폐자원은 별도 신청 없이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목표 확대, 사용비율 표시, 자발적 협약 확산 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둘째,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을 구축한다. 선별시설 고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로봇, 광학선별 등 다양한 기술을 현장에 도입한다. 아울러 플라스틱 무인회수시설 확충, 회수 대상 폐가전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고품질 분리배출·회수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설계·유통·소비 단계의 순환이용을 확대한다. 제품 설계단계에서 시행되는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을 제품 전 과정을 확대하고, 우수기업에게는 각종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또한 다회용 유통포장재 표준을 마련하고, 표준 포장재 이용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포장재 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순환경제 부문 규제를 개선한다. 순환경제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하고, 그간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기 어려웠던 원료재생업의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이외에도 이번 전략에는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배터리, 전자·섬유, 자동차·기계, 시멘트 등 주요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방안과 순환경제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순환경제 기반 구축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부문 혁신을 이루고 미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절호의 기회”라며 “주무부처로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순환경제가 산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과도한 포장재 줄이기 컨설팅 실시

2023년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 참여기업 대상으로



▲ 한국환경공단이 주류업계와 음식료품류 업계의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원순환제도 설명회와 기업 컨설팅을 마련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주류업계와 음식료품류 업계의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기업의 ESG 경영체계 지원을 위해 자원순환제도 설명회와 기업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탈플라스틱 전환 및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사)한국주류수입협회와 협업으로 진행됐다.

같은 기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주류 & 와인박람회’ 행사와 연계해 국내외 주류업계는 물론 박람회에 참여한 다양한 식품류 등 산업 관계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공단에서는 자원순환제도 및 정책 변화 등을 안내하고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과대포장 여부 점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방법 및 분리배출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공단에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과대포장이 되지 않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설계,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자원순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박람회 찾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과대포장 제품 기준 확인과 올바른 분리배출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필요한 일상생활 속 실천 방안을 안내하였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공단은 환경 정책 이행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 앞으로 제도 설명회와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농심 생생우동

플라스틱 트레이 · 비닐 포장 제거

플라스틱 사용량 연간 83톤 절감 기대

농심은 최근 생생우동의 플라스틱 트레이와 비닐 포장을 제거하고 종이 포장으로 전환했다고 지난 6월 14일 밝혔다. 농심은 이로 인해 플라스틱 사용



▲ 농심 생생우동 종이 포장.

량을 연간 83톤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심은 앞서 2021년 생생우동 묶음 포장을 띠지로 변경해 플라스틱 필름 사용량을 절감한 바 있다. 새로운 포장 역시 띠지 묶음 포장을 그대로 적용해 플라스틱 사용량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생생우동은 생면으로 구성해 일반라면의 포장 공정과 다르고, 제품 자체도 외부 충격으로 파손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동안 농심은 이 문제를 플라스틱 트레이로 해결해왔지만, 설비투자와 생산기술 고도화를 통해 제품 안전성과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해결했다.

농심 관계자는 “라면과 스낵에 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재질을 단순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사명감으로 지속 가능한 패키징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풀무원

롯데케미칼과 친환경 패키지 개발

ESG 경영 일환...MOU 맺고 공동사업 추진

풀무원과 롯데케미칼이 손잡고 친환경 혁신 패키지 개발에 나선다.

풀무원의 R&D센터 풀무원기술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롯데케미칼과 친환경 패키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6월 22일 밝혔다.

협약식은 6월 2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바이오폴

리스 지구 소재 풀무원기술원에서 열렸다. 탄소 중립 실현과 ESG 경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양사는 화학적 재활용 소재 개발과 개발된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식품 포장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친환경 패키지 제품 개발 협력 ▲친환경 패키지의 소재가 되는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친환경 원료를 이용한 제품화 확대 ▲기타 상호 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이행하게 된다.

화학적 재활용은 플라스틱을 단순하게 녹여 재활용하는 물리적 재활용이 아닌,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추출한 열분해유를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과 같은 깨끗한 원자재 상태의 원료로 회수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재

활용률이 높고 자원 선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중 하나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친환경 패키지 개발을 위한 원료 수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돼 화학적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친환경 식품 패키지 개발과 제품화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케미칼은 풀무원과 협력해 재활용 원료 수요 창출은 물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를 빠르게 파악, 고객의 친환경 제품 요구에 맞는 패키지 개발과 ESG 경영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윤 풀무원기술원장은 “풀무원은 ‘바른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



▲ 이상윤(사진 오른쪽) 풀무원기술원장과 황민재 롯데케미칼 종합기술원장이 협약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션 아래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친환경 소재와 포장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민재 롯데케미칼 종합기술원장도 “폴무원과 친환경 패키지 협업을 포함한 친환경 플라스틱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에브리 스텝 포 그린’이라는 친환경 슬로건을 바탕으로 자원 선순환 트렌드를 파악해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폴무원은 지난해 친환경 인증 소재, 재활용, 플라스틱 절감 원칙 등 친환경 포장 정책을 수립하고, 화학적 재활용 소재의 식품 포장 활용과 재활용이 용이한 단일 소재 포장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선순환 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폴무원은 식품업체 최초로 올해 하반기부터 주력 제품인 두부 포장 용기에 PP 소재를 사용하고, 2026년까지 두부 전 제품 용기에 확대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CJ제일제당

‘환경에 유해한 포장재 안 쓴다’

‘네거티브 리스트’로 선정

CJ제일제당은 환경에 유해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재질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선정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지난 6월 18일 밝혔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소재는 총 6가지로 글리콜변경PET수지(PET-G),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과불화옥테인술포산(PFAS), 발포폴리스타이렌(EPS), 폴리스타이렌(PS), 유색 유리병 재질 등이다.

CJ제일제당은 이 물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다.

또 제품에 적용 가능한 기술적 검토 등을 거쳐 사용 중단 시점과 글로벌 패키징 전략 등 구체적인 목표가 담긴 로드맵을 추후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플라스틱 법규 등 글로벌 눈높이에 맞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재활용·재사용·퇴비화 포장재로의 전환에 힘쓴다. 포장재로 인해 환경에 잔류하는 미세 플라스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 소재 브랜드 ‘팩트’(PHACT)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팩트는 CJ제일제당이 상용화한 생분해 소재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PHA) 브랜드로, 퇴비화가 가능하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CJ제일제당의 지속가능경영 8대 전략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패키징 추진 활동의 일환이다. CJ제일제당은 2019년부터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산화분해성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2020년부터 유색 페트병과 벤젠을 사용한 잉크를, 2021년에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수축라벨 사용을 중단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 제품, 솔루션 혁신을 통한 진정성 있는 지속가능경영(ESG)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 CJ제일제당 생분해 소재 PHA.

것"이라며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선에서 플라스틱 양을 최대로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본도시락

다회용기 시범 도입, 플라스틱 감축

잇그린과 협업, 8월 말까지 삼성직영점 시범 도입

본도시락이 6월부터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본도시락은 다회용기 전문업체 리턴잇(잇그린)과 협업해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삼성직영점에서 다회용기를 시범 도입한다.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선택 후 덮밥이나 샐러드를 주문하면 기존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에 담아 제공한다.

고객은 식사 후 음식물 처리나 분리 배출할 필요 없이 회수 신청 후 집 앞에 다회용기를 내놓으면 된다. 이후 리턴잇이 용기를 수거해 소독, 건조, 검수 등 9단계를 거쳐 세척한다. 본도시락은 다회용기 공급·수거·세척이 가능한 가맹점으로 다회용기 운영 매장을 점차 늘릴 예정이다.

또 본도시락은 올해 하반기부터 플라스틱 트레이

를 없앤 김을 제공한다. 가맹점별로 순차 도입해 연내 전국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본도시락은 전 가맹점 도입 시 연간 플라스틱 배출량 약 21톤을 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재의 본도시락 본부장은 "친환경 정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도입처를 전국 가맹점으로 늘려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X판토스

포장재 전량 친환경 소재로 전환

AJ네트웍스·물류통과 친환경 포장재 공급 MOU

LX판토스가 물류센터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 포장재를 전량 친환경 소재로 전환한다. 기존 화학원료 기반의 포장재를 재생원료로 만든 친환경 포장재로 대체해 녹색물류를 실천하고, ESG 경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LX판토스는 AJ네트웍스, 물류통과 함께 '녹색물류 실천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친환경 부자재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6월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LX판토스는 7월부터 전국 물류센터에 재생 스트레치 필름을 도입해 사용한다. 물류부자재 전문기업인 물류통이 LG화학으로부터 공급받은 PCR 원료로 재생 스트레치 필름의 생산을 맡고, 종합유통기업인 AJ네트웍스가 이를 LX판토스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PCR은 사용 후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을 선별, 분쇄, 세척 등의 재가공을 통해 플라스틱 알갱이 형태의 초기 원료로 변환하는 재활용 기술이다.

스트레치 필름은 물류센터나 산업현장에서 적재된 물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데 사용



▲ 본도시락 다회용기



▲ (사진 왼쪽부터) 김형진 AJ네트웍스 본부장, 맹운주 LX판토스 경영지원실장, 김도원 물류통 이사.

되는 물류포장용 비닐랩이다. 주로 폴리에틸렌(PE) 제품으로 일회성 소모재로 한번 사용 후 대부분 폐기되고 있다.

LX판토스가 국내에서 연간 사용하는 스트레치 필름 물량은 약 200톤으로 이를 모두 펼치면 길이가 2만3000km에 이른다. LX판토스는 이번 협력으로 물류 산업에서 급증하고 있는 배송 폐기물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한 자원 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SPC삼립

‘녹색인증 포장재-플렉소 인쇄’ 적용

산리오빵 · 삼립호빵 등 1600여 품목에 도입

SPC삼립이 자사 베이커리 및 푸드 주요 제품군에 녹색인증 포장재와 플렉소 인쇄를 적용하고 친환경 경영확대에 나선다고 지난 6월 9일 밝혔다.

SPC삼립은 포켓몬빵 · 산리오빵 · 삼립호빵 등 약 1600여 품목에 녹색인증을 받은 친환경 패키지를 적용했다.



▲ 녹색인증 포장재를 도입한 제품.

메틸에틸케톤(MEK) · 톨루엔 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선명한 색감을 유지하는 친환경 포장재 제조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SPC삼립은 해당 패키지 적용을 향후 전 제품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SPC삼립은 녹색인쇄라 불리는 플렉소 인쇄 방식으로 제조한 친환경 포장재를 삼립호빵 · 미니꿀약과 등 140여 품목에 적용했다. 플렉소 인쇄는 기존 그라비아 인쇄와 달리 양각 인쇄를 통해 안전성 높은 수성잉크를 사용한다.

기존 대비 잉크 사용량을 40% 이상 절약하고, 연간 약 45톤에 달하는 잉크와 유해화학물질인 유기용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올해까지 적용 품목을 현재보다 50%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을 위해 제품 내 트레이를 제거하고 재생수지(PCR) 필름 및 종이 소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SPC삼립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친환경 제품 및 업사이클링 제품 생산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기술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폐기물의 관리 체계 구축,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재자원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후루코리아

제품 포장까지 '친환경'

친환경 소재인 PLA 사용

바나나 전문 글로벌 청과 기업인 스미후루코리아가 친환경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6월 5일 스미후루코리아(대표 박대성)는 옥수수과 사탕수수 추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소재인 PLA(폴리락타이드)를 제품 포장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PLA는 180일 내 자연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소재로 별도의 분리배출 없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다.

스미후루코리아는 2021년 8월 ▲품미왕 바나나 3입 소포장 상품을 시작으로 ▲스미후루 순 유기농 바나나 3입 소포장 팩 ▲로즈바나나 등 3가지 제품에 PLA 소재 용기를 먼저 도입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 ▲감속왕 바나나 ▲스위트마운틴 바나나 ▲스미후루 바나나 등 상품 3종에 추가적으로 친환경 PLA 락지를 적용했다.

또한 스미후루코리아는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건강한 공존'이라는 기업 철학을 실현하는 '고 그린(GO GREEN) 캠페인'을 통해



▲ 왼쪽부터 PLA를 적용한 품미왕 바나나, 스미후루 순 유기농 바나나, 감속왕 바나나

천연 퇴비 개발과 농법 개선은 물론 ▲자연재해 복구 지원 ▲친환경 농장 시스템 ▲나무심기 사업 ▲재활용 에코 크레이트 등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 세계 바나나 청과 기업 중 최초로 온실 가스에 관한 국제 표준 ISO 14064-2를 인증 받기도 했다.

스미후루코리아 관계자는 "친환경 포장 상품을 확대는 물론, 환경을 위한 자체적인 프로젝트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HD현대오일뱅크

재생 플라스틱으로 윤활유 용기 만든다

윤활유 브랜드인 엑스티어(XTeer) 제품에 도입

HD현대오일뱅크가 폐기 처리되는 배터리 분리막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윤활유 제품 용기를 만든다.

HD현대오일뱅크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인 신성산업과 공동 개발한 재생 플라스틱 용기를 자사 윤활유 브랜드인 엑스티어(XTeer) 제품에 도입한다고 지난 6월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친환경 용기는 제조 공정 중 폐기 처리되는 배터리 분리막을 재활용해 만들었다.

기존 용기보다 강도가 높고 순도 또한 높아 무색, 무취, 무독성을 띤다. 형광색과 같은 별색 구현도 가능하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친환경 용기는 국내뿐 아니라 동유럽,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수출용 윤활유 제품에도 적용될 예정"이라며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